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Middle-Aged Salaried Workers' Retirement Plans: Economic Preparation and Health Care Plan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홍성희*

우석대학교 주거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곽인숙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Hong, Sung-Hee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Woosuk University

Professor : Kwak, In-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middle-aged salaried workers' retirement plans an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lans. The main point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male workers with female workers on their economic preparation and health care plan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iddle-aged salaried workers perceived their level of economic retirement plan to be relatively low. Second,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level of economic preparation for post-retirement were their current subjective economic level, age, household assets and debts, economic and health problems expected in their future elderly life, and savings and assets reserved for their elderly life. Third, the factors that affected whether to put aside savings for elderly life or not were age, current subjective economic level, capital assets, and savings and assets reserved for their elderly life. Fourth,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post-retirement health care depended on health problems expected in their elderly life, current subjective economic level, locus of control, job, and expected retirement age. Overall, the factors that affect male salaried workers' economic and health care plan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female salaried workers.

From th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middle-aged salaried workers' level of economic retirement plans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ir health care plans. Also, male salaried workers' level of retirement plan were different from that of female workers.

▲주요어(Key Words) : 은퇴계획(retirement plans), 경제적 준비수준(level of economic preparation), 건강준비수준(level of health care plan)

* 주 저 자 : 홍성희 (E-mail : hsh@kmu.ac.kr)

I.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은퇴 후 노후생활문제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후생활문제로는 노년기에 사회경제적 역할이 감소됨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소외감,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등이 있으며, 이 중 특히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경제문제와 건강문제이다(손상희, 2000; 통계청, 2004).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가족생활과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노년기의 모든 활동을 감소시킨다. 실제로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문제로 나타나며(이정숙 등, 2005),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 및 질병상태는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 문제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노년기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는 상호관련된 문제로서 은퇴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이나 사회보장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년기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근로자로 하여금 미래소득을 준비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는 반면 기업에서는 인사 적체와 중고령자의 임금-생산성 괴리 해소차원에서 조기퇴직이 장려되고 있어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도 불안한 미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봉급생활자의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일반화되면서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중년기 근로자에게도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은퇴 후 생활계획은 지금까지 주로 노년기의 문제로 인식되어 은퇴자 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중년층의 조기퇴직현상과 고령화 속도,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면서 은퇴계획은 빠를수록 좋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인 40대는 인구의 16.8%를 차지하는 대규모집단으로 1980년대 이후 외환위기 전까지 고성장의 주역으로 활약했지만 은퇴 후를 준비할 틈도 없이 고령화 충격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계층으로 분류되기도 한다(현대경제연구원, 2005를 한국경제신문, 2005. 10. 30에서 재인용). 이들은 고성장 시기에 소비수준을 높여 놓았지만 금융자산은 매우 적으며 근로소득의 발생기간이 점차 단축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 자신들은 부모를 부양했지만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로, 자녀로부터의 사적 이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취

약한 재무구조를 미리 개선하고 은퇴 후를 대비한 경제설계를 준비해야 한다.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측면 뿐 아니라 독립적인 삶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경제·환경자원까지도 의미한다. 이러한 건강의 중요성은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의 퇴화와 질병의 저항력이 감퇴되는 중년기 이후부터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된다. 40대 이후에는 인체기관의 기능이 점차 퇴화되어 형태학적,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 현상이 나타나는 노화가 시작되는데 노화와 건강은 상호관계에 있다. 따라서 중년기에 시작되는 노화현상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은퇴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신하연, 1997; 이승아, 1998; 손상희, 2000; 이지은, 2000; 문숙재 등, 2001; 최가영 등, 2001). 이러한 접근은 경제활동과 은퇴를 남성의 현상으로 보는 반면, 여성의 일은 가정 내 역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전통적인 통념에 기인한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이제 은퇴 문제와 은퇴 후 계획은 여성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 후 생활문제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중년기부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중년층이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는 은퇴 계획의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의 은퇴에 대한 인식과 자원상태에 따라 은퇴계획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은퇴계획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가족 내에서 담당하는 경제적 역할과 은퇴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남녀의 은퇴계획의 실태와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중년기의 은퇴계획을 알아보는 연구는 중년기의 노후대비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개인으로서의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년기의 은퇴계획

은퇴 계획은 은퇴계획 연구 또는 노년기 준비 교육프로그램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은퇴계획연구에서 은퇴계획은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여가생활, 가족생활, 노후주거 등의 세부 측면에서 필요한 것(신하연, 1997; 이승아, 1998; 이지은, 2000)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노년기 교육프로그램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적응과

생활만족을 위해 경제, 건강, 여가, 주거, 가족관계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허정무, 1998; 전길양 등, 2000; 이주일, 2003). 이러한 영역 중 특히 건강과 경제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태는 개인의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으로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통계청, 2004; 이정숙 등, 2005)이기 때문이다.

중년기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한 다음 은퇴준비를 통해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재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가진다. 은퇴로 인한 심리사회적 영향과 은퇴 이후의 적응양상은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애순 등, 1995). 즉,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무거운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난 것으로 느끼며, 새로운 활동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취미생활이나 새 역할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Bosse, Aldwin, Levenson & Workman-Daniels, 1991) 반면 은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Parnes, 1981), 신체 건강이 악화되어 의료시설 사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Boaz & Muller, 1989) 이러한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와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개인차는 개인이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은퇴 이후에 적응해 나가는가에 따라 은퇴 이후의 생활이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생활 적응과 생활의 질을 위해 은퇴 이전, 즉 중년기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은퇴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로 기대여명이 연장됨에 따라 은퇴 이후 소득보장과 소비수준 유지가 중요해진다.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개인은 일생에 걸친 소비지출 패턴을 생애소득의 전체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중장년기 동안은 노년기를 위해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해야 하는데, 노후생활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노후소득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하거나, 노후의 적정소비수준을 예측하더라도 충분한 저축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공적연금기금의 고갈 위험성이 커지며, 노후자산의 투자수익률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노후수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는 투자위험요인이 있으며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 물가상승이 노후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노후 경제적 준비에 대한 조사로서 정경희 등(2005)의 조사결과에서는 노후를 위해 경제적인 준비를 한 비율은 28.3%에 불과하며, 이 중 15.3%는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년의 소득보장을 위해 청장년기의 저축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노년인

구의 소득원 중 자녀 지원 등 사적 지원이 78.8%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노인의 경제생활에 있어 아직 사적 부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존적인 형태를 보여 준다.

이러한 실태는 현재의 노인세대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한 사람이 적고, 노후 소득원으로서 자녀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의 유지를 위해서는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이를 위한 장기적인 경제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건강은 개인이 신체적 독립상태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기능적으로 해나가며 사회생활에서 기대되는 역할 수행 및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서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체적·정신적·사회심리적 건강상태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하여, 그 결과로서 건강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나, 신체적 기능 감소로 인한 신체적 건강상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정순 외, 1996). 신체적 건강은 생활만족, 사회적 역할의 수행,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의 소속감, 여가를 유용하게 보내는데 영향을 미치고(Atchley, 1988), 건강상태가 양호할 때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므로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은 노후생활의 원동력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건강은 노년기의 삶의 만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홍성희 등, 1998).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조사(2005)에서 전체 대상 노인 중 90.9%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과 치료비 부담이 힘든 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은 노인의 경우 건강관리가 낮으며, 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는 노인들은 예방적 건강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희, 1997; 이성희, 1997). 이러한 결과는 노후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건강관리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년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중년기부터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과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노년기에는 건강상태와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는 데, 현재의 노인세대는 건강 및 경제적 상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현재 중년층의 경우 기대여명이 연장되는 한편 조기퇴직의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노후에 자녀로부터의 부양이나 소득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최근 들어 중년기부터 은퇴 후 건강과 경제적 능력에 대한 설계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년기의 노후준비도를

조사한 이희자 등(1996)의 연구에서는 책임있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로 노후준비방법에 있어서는 폭넓은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기 남성들은 노후생활에서 신체적 건강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노후생활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이지은, 2000), 노후대책을 세울 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은 건강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노후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경, 1992). 또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도 40대 직장인 중 노후 경제생활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하고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중년층의 노후 경제준비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배문조 등(2004)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노후 경제적 준비가 필요한 계층에서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년기 은퇴계획의 영향요인

중년기 은퇴계획은 개인의 특성과 경제적 상태, 은퇴에 대비한 객관적·주관적 상황 등과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 남녀의 은퇴설계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전반적인 중년기 대상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성별은 은퇴에 대한 태도를 통해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일찍 직업생활을 시작하고 퇴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배문조 등, 2004) 은퇴 준비도 남성에 비해 먼저 시작할 수 있고 필요성도 더 클 수 있다. 배문조 등(2004)의 연구결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여성이 가족부양의 역할을 하지 않거나 남편의 소득이 있어 은퇴 후의 생활전망이 보다 긍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은퇴에 대한 태도가 다르므로 건강과 경제문제에 대비한 은퇴설계에 있어서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년층의 노후생활전망에 대한 김승희(1997)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와 별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후대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다는 결과(김미경, 1992)도 있다. 반면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의 47.8%가 노후경제생활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 노후경제생활계획 여부에 차이가 있어 40대가 50대보다 노후경제생활계획을 수립할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예측과 준비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은 현재 연령보다는 정년퇴직연령이라고 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정년연령에 따라 자신의 은퇴 시기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예상퇴직연령과 그에 따른 은퇴까지의 남은 기간이 노후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계획의 계획성이 높다는 연구(McPherson & Guppy, 1979; 김인숙, 1993)가 있는가 하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Barfield & Morgan, 1978)도 있다. 특히 임장순(1990)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노후를 의존하지 않기 위해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은 노후계획에 대한 의식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은 직종과 지위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직업을 연금수혜직종과 비수혜직종으로 구분한 신하연(1997)의 연구에서는 공적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업종사자의 노후준비저축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업은 연금혜택여부 뿐 아니라 근로소득, 정년연령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노후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은퇴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은퇴를 내적 통제 또는 외적 통제신념에 의해 자신의 행동의 결과 혹은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가에 따라 은퇴에 대한 태도와 준비가 달라질 것이다.

소득은 생활수준 및 생활양식,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은퇴 후 생활계획에 영향을 미친다(서병숙, 1992). 배문조 등(2004)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하연(1997)의 연구에서도 중년기 소비자의 소득 수준과 순자산이 경제적 노후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도 월평균 소득과 총자산이 노후 경제생활계획여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년층이 미래를 위해 더 구체적인 준비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소득과 자산이 어느 정도 충분해야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년기의 소득과 자산 중에서도 노후대비자산인 노후자금은 노후경제준비에 더욱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총저축액과 자산액 중 노후를 대비한 저축액과 자산율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 낮게 생각하는 사람에 비

해 노후경제생활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높았고(이지은, 2000), 노후대비저축율과 자산율은 노후 경제적 대비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신하연, 1997). 중년기의 부채는 소득이나 총자산과 같이 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노후 경제계획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는 현재 가계경제에 대한 평가가 노후 경제생활계획여부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객관적인 경제상태 뿐 만 아니라 주관적인 경제력 인지도 노후 경제생활을 계획하는데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내준다.

노년기의 건강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있는 식사, 음주와 흡연의 절제 등 건강관리노력을 꾸준히 하는 집단에서, 그리고 교육수준과 소득 등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좋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이정숙 등, 2005). 즉, 노년기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실천정도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경제활동여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김남진, 2000; 서인선, 2000).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배문조·전귀연(2004)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신체적 준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를 대비한 신체적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적 통제가 강할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연경 등(1991)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은퇴 후 건강유지에 대한 계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중년층의 은퇴설계는 개인의 특성과 경제적 상태, 은퇴준비와 관련된 요인에 따라 다양하며, 이러한 차이는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 측면에서 각각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년기 봉급생활자의 은퇴 후 노후설계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은퇴 후 설계의 대상 영역 중 가장 중요한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경제적 문제는 객관적인 준비상태를 나타내는 노후대비저축 여부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며, 노후건강문제는 노후건강을 위한 준비수준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남녀봉급생활자의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가,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남녀봉급생활자의 노후대비저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가,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남녀봉급생활자의 노후 건강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가,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2.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도구는 남녀봉급생활자의 개인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 은퇴준비변수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내외통제성을, 경제적 변수에는 주택자산, 월평균 가계소득, 가계부채, 주택자산 및 금융자산, 현재의 주관적인 경제적 능력을 포함하였다. 내외통제성은 홍성희 등(1998)의 연구를 참고로 5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신뢰도계수는 .71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퇴준비변수로는 은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은퇴예상연령, 노후생활문제 인식, 노후대비저축액, 노후자금을 조사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경제적 영역에서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 노후대비저축여부와 건강 영역에서 노후건강준비수준을 설정하였는데 각각 김순미 등(2004), 이정숙 등(2005)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3. 조사대상자 및 자료의 표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수도권,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주시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봉급생활자이다. 조사대상을 봉급생활자로 한 것은 외환 위기 이후 봉급생활자의 조기 퇴직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은퇴계획의 필요성이 확산되는 한편 일정급으로 은퇴준비가 비교적 용이할 뿐 아니라 은퇴 연령 및 준비 기간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중년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볼 때 가족생활주기의 관점에서는 자녀양육의 역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는 세대이며, 개인적 발달의 관점에서는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절정기에 달하여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김명자, 1989)로서 연령 규정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40대가 베이비붐 세대로 인구의 16.8%를 차지하는 대규모집단이며 은퇴준비를 할 여유 없이 고령화시대를 맞는 첫 세대라는 점에서 은퇴계획을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	노후 경제적 준비에 대한 주관적 인지 수준 1=하 3=중 5=상
노후대비저축여부	노후를 위한 현재 저축의 여부 1=저축함 0=저축안함
노후 건강준비수준	노후 건강을 위한 현재 준비 및 실천 정도 1=하 3=중 5=상
개인적 변수	
성별	1=남성 0=여성
연령	만 연령(세)
교육수준	1=고졸이하 0=대졸이상
직업(기타 직업)	
사무직	1=사무직(기술직, 사무직) 0=기타(단순노무직, 판매직 등)
전문 · 관리직	1=전문 · 관리직(관리직, 전문직, 기업가) 0=기타(단순노무직, 판매직 등)
내외통제성(5)	중요한 생활사건을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생각하는 정도 또는 자신의 영향력 밖의 결과로 생각하는 정도 1=외적통제성이 강함 3=보통 5=내적통제성이 강함
경제적 변수	
가계소득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가계부채	현재의 가계 총부채액(만원)
주택자산	자가시세, 또는 전세금, 월세 등의 총주택관련 자산액(만원)
금융자산	저축, 보험, 주식, 채권 등의 총금융자산액(만원)
주관적 경제적 능력	가구의 현재 경제적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1=하 3=중 5=상
은퇴준비변수	
예상은퇴연령	현재 직업을 그만두는 예상 연령
노후생활문제인식(경제, 건강, 여가, 주거, 소일거리, 사회적관계)	각 영역별 노후생활에 대한 문제 인식 1=매우 걱정된다 3=보통 5=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노후대비 저축액*	현재까지의 노후를 위한 저축액(만원)
노후자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만원)

() : 설문 문항수

* 실태분석(표 2, 표 3)에서만 사용된 변수임

필요로 하나 취약한 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중년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2003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신뢰도계수와 내용타당도 등을 검토하여 설문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3년 6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한 유의적 표본추출을 통해 실시하였고, 조사하였으나 부실응답 등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방식은 연구자 및 훈련된 조사원의 직접면접과 직장인의 자

기가입방식, 우편배부 및 회수방식 등을 병행하여 실시 837부의 표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표본의 분석방법은 PC SPSS Program(Ver 12.1)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경제적 변수, 은퇴준비변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고 남녀간 비교를 위해 t-test와 χ^2 분석을 실시하였

다. 노후대비저축여부는 이항변수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Logistic분석을,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과 건강준비수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은퇴준비실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63.1%, 여성이 36.9%로 남성의 비율이 더 많았다.

유의적 표본추출에도 불구하고 여성비율이 낮은 것은 남성에 비해 봉급생활자에 종사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연령은 평균 46.6세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31.5%, 대졸 48.4%, 대학원 이상이 2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관직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 33.3%, 기타가 22.5%순이었는데 이는 연령이 40대 이상으로 높은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자산은 평균 약 14,541만원, 금융자산은 10,18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계부채는 약 2,350만원 이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428만원, 조사대상자 스스로가 인지하는 경제적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37)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	63.1
	여	36.9
연령	40-45세	45.9
	46-50세	30.6
	51세 이상	23.5
교육수준	고졸 이하	31.5
	대졸	48.4
	대학원졸이상	20.1
직업	전문관리직	44.2
	사무직	33.3
	기타	22.5
주관적 경제적 능력	하	4.9
	중하	23.4
	중	60.3
	중상	11.1
	상	0.2
노후대비	저축함	68.2
저축여부	저축안함	31.8
연속형 변수		평균
연령	46.85	표준편차
내외통제성(5점)*	4.04	1.28
가계소득(만원)	428.29	249.18
가계부채(만원)	2350.77	5426.74
주택자산(만원)	14541.46	14133.85
금융자산(만원)	10180.11	20166.91
주관적 경제적 능력(5점)*	2.78	0.71
예상은퇴연령	57.74	4.81
노후대비 저축액(만원)	3839.1	4651.9
노후자금(만원)	11534.05	19505.28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5점)*	2.56	.89
노후 건강준비수준(5점)*	3.12	.667

()* : 최고점 표시

능력에 대해 60.3%가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평균점은 2.78점으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중간수준보다 약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노후대비저축을 한 비율은 68.2%, 노후대비 저축액은 평균 3,839만원이었으며,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11,534만원이었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는 평균 2.56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년기 봉급생활자들의 은퇴준비실태와 경제적 변수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표 3>과 같다. 가계소득은 남성이 399만원, 여성 479만원으로 여성봉급생활자의 가계소득이 더 많았으며, 여성봉급생활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경제적 능력은 2.85점으로 남성의 2.74점보다 높았는데, 이는 여성봉급생활자의 가계소득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후생활문제 중 경제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는 남성의 경우 3.37점으로 여성의

3.22점보다 높았다. 반면 노후생활문제 중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는 여성이 평균 3.52점으로 남성평균 3.36점보다 더 높아 여성이 노후건강에 대해 더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퇴예상연령은 남성의 경우 평균 58.51세로 여성의 56.43세보다 높았다. 노후대비저축 여부를 성별에 따라 비교했을 때 남성 중 저축하고 있는 경우가 66.4%이 있어 은퇴준비도 남성에 비해 먼저 시작할 수 있고 필요성도 더 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배문조 등(200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가계부채, 주택자산, 금융자산, 노후생활제영역 중 여가생활, 주거, 소일거리,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문제인지수준과 노후대비 저축액은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3> 남녀의 경제적 변수와 은퇴준비변수의 비교

	남성(N=528)		여성(N=309)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계소득	398.65	266.968	478.96	206.157	-4.865***
가계부채	2449.43	5843.084	2182.20	4633.732	.730
주택자산	14645.64	15652.78	14363.43	11088.30	.304
금융자산	9172.63	15070.05	11901.62	26657.27	-1.652
주관적 경제적 능력	2.74	.714	2.85	.699	-2.218*
노후생활문제인식(경제)	3.37	.818	3.22	.834	2.551*
" (건강)	3.36	.862	3.52	.851	-2.591*
" (여가생활)	2.98	.808	2.84	.840	2.443
" (주거)	2.62	.892	2.52	.924	1.510
" (소일거리)	2.86	.911	2.80	1.000	.942
" (사회적관계)	2.72	.851	2.60	.933	1.893
예상은퇴연령	58.51	4.322	56.43	5.294	5.861***
노후대비 저축액	3991.67	9222.60	3578.38	7682.13	1.981
노후자금	11894.89	22039.06	10917.48	14176.58	.780
주관적 노후 경제적 준비	2.57	.896	2.53	.888	-.625
노후 건강 준비 수준	3.13	.669	3.11	.665	-.432
	남성(N=528)		여성(N=309)		X ² 값
	빈도(%)	기대빈도	빈도(%)	기대빈도	
노후대비 저축여부					
저축함	340(64.4)	360.2	231(74.8)	210.8	9.656***
저축안함	188(35.6)	167.8	78(25.2)	98.2	

*p< .05 **p< .01 ***p< .001

2. 남녀봉급생활자의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봉급생활자, 남성봉급생활자, 여성봉급생활자 집단별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주관적 경제적 능력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노후생활문제 중 경제문제인지수준, 건강문제인지수준, 노후자금, 성별, 금융자산, 가계부채, 연령과 주택자산의 순서였으며, 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가계소득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가계부채가 적을수록, 주택자산과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현재의 경제적 능력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을수록 경제적인 준비 인식이 높았는데, 이는 신하연(1997)의 중년기소비자

대상 연구에서 순자산이 많을수록 노후대비 순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나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대비수준이 높았던 김인숙(1993)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노후의 생활문제 중 경제문제에 대한 걱정이 적을수록,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을수록, 노후자금이 많을수록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남성봉급생활자의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주관적 경제적 능력, 노후생활문제 중 경제문제와 건강문제, 가계부채, 노후자금, 금융자산 등의 순서로 전체의 46.9%의 설명력을 가진다. 여성봉급생활자의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적 능력의 영향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는 가계소득, 노후 경제문제인지수준만이 영향을 미쳐 40.9%의 설명력을 가진다. 즉, 여성의 경우 현재의 경제적 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노후에 경제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견할수록 노후의 경제적 준비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자

<표 4>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전체(N=837)		남성(N=528)		여성(N=309)	
		b	β	b	β	b	β
개인적 변수	연령	.010	.058*	.008	.048	.015	.070
	교육수준	.109	.057	.143	.075	.009	.005
	사무직	.015	.008	.031	.017	-.009	-.005
	전문관리직	.031	.017	.070	.038	-.073	-.041
	내외통제성	-.030	-.038	-.035	-.045	-.024	-.030
	성별	.139	.075**	-	-	-	-
경제적 변수	가계소득	8.861E-05	.025	-2.7E-05	-.008	.000	.115*
	가계부채	-1.1E-05	-.067**	-1.3E-05	-.086**	-4.4E-06	-.023
	주택자산	3.679E-06	.058*	3.543E-06	.062	8.189E-08	.001
	금융자산	3.084E-06	.070**	5.067E-06	.085*	1.688E-06	.051
	주관적 경제적 능력	.600	.477***	.614	.489***	.565	.445***
은퇴준비변수	노후생활문제인지(경제)	-.246	-.228***	-.221	-.201***	-.278	-.262***
	" (건강)	.081	.078**	.091	.088*	.049	.047
	" (여가)	.031	.029	.041	.037	-.001	-.001
	" (주거)	-.055	-.055	-.071	-.071	-.026	-.027
	" (소일거리)	.008	.009	.037	.037	-.038	-.043
	" (사회적관계)	-.014	-.014	-.080	-.076	.092	.096
	예상은퇴연령	.002	.011	.006	.031	-.005	-.028
	노후자금	3.418E-06	.075**	3.477E-06	.086*	3.575E-06	.057
상수	.745***		.771***		1.028***		
R ² (Adj-R ²)	.460(.446)		.487(.469)		.443(.409)		
F값	36.686***		26.823***		12.818***		

*p< .05 **p< .01 ***p< .001

산보다는 소득수준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신하연(1997), 배문조 등(2004)의 연구 결과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3. 남녀봉급생활자의 노후대비저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후를 대비한 저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Logistic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노후대비저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적 변수 중 연령, 경제적 변수 중 금융자산과 주관적 경제적 능력, 은퇴준비변수 중 노후자금으로 확인되었다.

즉 중년층 봉급생활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주관적 경제적 능력을 낮게 평가할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노후자금이 많을수록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 월평균소득과 총자산이 많은 집단에서, 노후대비 저축율과 노후대비 자산율이 높은 집단에서 노후 경제생활계획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노후자금이 많을수록 노후대비저축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를 볼 때 노후자금을 중년기부터 예비하는 경제적 여유 집단은 다가오는 노년기에 경제적인 문제를 덜 겪는 반면, 중년기에 노후대비저축을 하지 못하는 취약집단은 노년기에 경제적인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봉급생활자의 은퇴 후 노년기 경제생활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봉급생활자의 노후대비저축여부에는 연령, 내외통제성, 금융자산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봉급생활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외제성이 강할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봉급생활자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노후자금이

<표 5>노후대비저축 여부에 관한 로지스틱 분석

독립변수	전체(N=837)		남성(N=528)		여성(N=309)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개인적 변수						
연령	.065***	.017	.062**	.020	.081*	.037
교육수준	-.398	.205	-.221	.245	-.809*	.404
사무직	.164	.222	.048	.269	.482	.424
전문관리직	.092	.242	.184	.294	-.177	.471
내외통제성	-.122	.068	-.213*	.084	.110	.133
성별	.204	.183	-	-	-	-
경제적 변수						
가계소득	.000	.000	.000	.000	.000	.001
가계부채	.000	.000	.000	.000	.000	.000
주택자산	.000	.000	.000	.000	.000	.000
금융자산	.000*	.000	.000**	.000	.000	.000
주관적 경제적 능력	-.296*	.129	-.269	.156	-.337	.243
은퇴준비변수						
노후생활문제인지(경제)	.127	.121	.120	.147	.247	.231
" (건강)	-.098	.105	-.137	.127	-.060	.199
" (여가)	.002	.126	.086	.158	-.111	.229
" (주거)	.103	.108	.033	.135	.232	.192
" (소일거리)	-.072	.116	-.001	.147	-.218	.213
" (사회적관계)	.078	.122	-.086	.152	.350	.226
예상은퇴연령	-.104	.018	-.031	.025	.005	.030
노후자금	.000*	.000	.000	.000	.000*	.000
상수	-1.672	1.287	.293	1.674	-5.062	2.373
Log Likelihood	969.816***		639.156***		303.207***	

*p< .05 **p< .01 ***p< .001

영향을 미치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자금에 많을수록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하고 있었다.

연령은 전체 대상자와 남성, 여성 각 집단의 노후대비 저축 여부에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노후대비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구체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후대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다는 연구결과(김미경, 1992)와도 일치하고 있다.

4. 남녀봉급생활자의 노후 건강에 대한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녀 봉급생활자의 노후 건강에 대한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수, 경제적 변수, 은퇴준비변수를 독립변수로 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노후 건강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후생활문제 중 건강문제인지수준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주관적 경제적 능력, 내외통제성, 생활문제 중 소일거리문제인지, 직업(전문관리직), 예상은퇴연령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의 8.2%의 설명력을 가진다. 즉 노후 건강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수록 노후건강에 대한 준비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경제적 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개인적 성향이 내제성이 강할수록 노후건강에 대한 준비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후에 적합한 소일거리에 대해 걱정할수록, 기타직업에 비해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노후건강에 대한 준비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은퇴연령이 높을수록 노후건강에 대한 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조사대상자 중 남성봉급생활자의 노후건강에 대한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예상은퇴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는 주관적 경제적 능력, 내외통제성, 연령 등의 순서로 전체의 8.5%의 설명력을 가진다. 즉 예상은퇴연령이 많을수록, 현재의 경제적 능력을 높게 인지할수록, 내제성이 높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노후 건

<표 6> 노후 건강준비수준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전체(N=837)		남성(N=528)		여성(N=309)	
		b	β	b	β	b	β
개인적 변수	연령	-.007	-.058	-.013	-.102*	.004	.024
	교육수준	.006	.004	-.039	-.028	.094	.067
	사무직	-.074	-.052	-.035	-.025	-.163	-.109
	전문관리직	-.140	-.104*	-.148	-.109	-.145	-.109
	내외통제성	.067	.113**	.074	.127**	.045	.075
	성별	.000	.000	-	-	-	-
경제적 변수	가계소득	.000	-.056	.000	-.076	2.100E-05	.007
	가계부채	4.870E-08	.000	-6.2E-08	-.001	-2.1E-06	-.014
	주택자산	3.425E-06	.073	1.919E-06	.045	8.961E-06	.149*
	금융자산	9.905E-07	.030	3.489E-06	.079	1.226E-07	.005
	주관적 경제적 능력	.124	.132**	.129	.138**	.094	.098
은퇴준비변수	노후생활문제인지(경제)	-.002	-.003	.007	.008	.004	.005
	"(건강)	-.109	-.140***	-.057	-.074	-.207	-.265***
	"(여가)	.043	.053	.036	.044	.022	.028
	"(주거)	-.007	-.009	-.033	-.044	.049	.068
	"(소일거리)	-.086	-.112*	-.075	-.102	-.102	-.153*
	"(사회적관계)	-.010	-.013	-.012	-.015	.014	.019
	예상은퇴연령	.011	.080*	.024	.152**	-.004	-.029
	노후자금	1.624E-06	.047	1.952E-06	.064	-3.9E-07	-.008
상수		2.829***		2.171***		3.429***	
R ² (Adj-R ²)		.103(.082)		.116(.085)		.149(.096)	
F값		4.912***		3.719***		2.814***	

*p< .05 **p< .01 ***p< .001

강에 대한 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40대 이상의 중년층에서는 연령이 적은 대상자들이 노후건강에 대해 준비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배문조 등(2004)의 연구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 하지 않는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여성의 노후 건강의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후 생활문제 중 건강문제인지수준, 소일거리 문제인지수준, 주택자산 등이었다. 즉 여성봉급생활자는 노후에 건강과 소일거리 영역에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견할수록, 주택자산이 많을수록 노후 건강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노후건강문제 인지수준은 건강준비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년기 봉급생활자의 은퇴 후 생활계획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성별에 따라 은퇴계획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은퇴 후 경제적 준비 및 건강준비의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예상은퇴연령은 약 57.7세이며,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68.2%였고, 노후대비 저축액은 평균 3,839만원,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11,534만원이었다. 은퇴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정도는 평균 2.56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기 봉급생활자들 중 여성봉급생활자의 가계소득은 479만원으로 남성의 가계소득보다 많았으며,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현재의 경제적 능력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문제 중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걱정하는 반면 건강에 대해서는 여성이 더 염려하고 있었다. 예상은퇴연령은 남성이 평균 58.51세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 전체의 주관적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현재의 주관적 경제적 능력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남성이, 가계부채가 적을수록, 주택자산과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노후 경제생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수록, 노후건강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할수록, 노후자금이 많을수록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수준을 높게 인식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남성의 주관적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적 경제적 능력, 생활문제 인지

영역 중 경제문제와 건강문제, 가계부채와 노후자금, 금융자산 등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주관적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적 능력의 영향이 가장 크며, 가계소득, 생활문제 인지영역 중 경제문제 등이 영향력을 미쳤다. 즉, 남성의 경우 가계의 부채나 자산이, 여성의 경우 소득수준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차이를 보였다.

넷째, 노후 대비 저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주관적 경제적 능력, 금융자산, 노후자금 등으로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확인되었다. 한편 남성의 경우 연령, 내외통제성, 금융자산이, 여성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노후자금이 노후대비 저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노후의 건강 준비수준에는 생활문제 인지영역 중 건강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주관적 경제적 능력, 내외통제성, 생활문제 인지영역 중 소일거리, 직업(전문관리직), 예상은퇴연령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노후건강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예상은퇴연령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그밖에 주관적 경제적 능력, 내외통제성, 연령 등이 영향력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생활문제 인지영역 중 건강, 소일거리, 주택자산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남녀봉급생활자의 은퇴와 관련된 문제인식과 준비 실태를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노후 경제문제를 더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건강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계소득이 많고 주관적 경제적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노후대비저축을 하고 있는 경향도 높아 노후 경제문제보다는 건강문제를 더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계자산 및 부채, 노후대비저축액과 노후자금 등 은퇴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거나 은퇴 후를 대비한 자산에는 남녀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여성의 근로소득이 본인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함으로써 은퇴계획과 은퇴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관적 측면의 경제적 은퇴설계인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 인식은 남성봉급생활자들이 여성봉급생활자에 비해 높았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개인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은퇴변수들이 각각 봉급생활자의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봉급생활자의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경제적 은퇴설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주관적 경제적 능력이 전체 집단과 남성 및 여성 집단 각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확인

됨으로써 객관적인 경제상태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절대적, 상대적인 경제력보다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은퇴계획의 필요성이나 은퇴계획의 시작 시기 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성봉급생활자의 경제적 준비수준에는 부채 및 자산, 즉 순자산이 주요한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경우 자산보다는 가계소득에 따라 준비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소득 및 자산, 부채 등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은퇴 후 경제적 계획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나, 남성의 경우 자산과 부채를 고려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준비를 하며, 여성의 경우 현재 소득 중 여유분을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단기적 경향을 보이는 차이로 볼 수 있다.

한편 각 집단에서 노후생활 중 경제문제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준비 수준은 높았다. 이는 노후에 경제적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집단, 즉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계층에서 준비를 더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현재 저소득층이나 은퇴 후 자기부양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은퇴 후 생활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은퇴설계가 필요한 집단에서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 객관적 측면의 경제적 은퇴설계로 볼 수 있는 노후대비저축 여부에는 연령이 많을수록 저축을 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즉 봉급생활자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은퇴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주관적 측면의 경제적 은퇴설계인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는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로,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은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후생활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노후저축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자금이 영향을 미치는데, 노후자금이 많을수록 노후대비저축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후자금과 노후대비저축은 상호적인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주관적인 경제적 준비수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계층에서는 구체적인 경제적 은퇴설계를 중년기부터 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에서는 은퇴설계를 시작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서 은퇴 후에도 소득수준 및 계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남성 집단에서는 외적 통제의 성향이 강할수록 저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와 관련된 사건들, 즉 조기 은퇴나 은퇴 후 건강 악화, 은퇴 후 기대여명의 연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러한 사건들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은퇴 전부터 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저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저학력·저소득의 취약집단이라기 보다는 봉급생활자 중에서 연령과 관련하여 연령 증가에 따라 저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인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신체적 측면의 은퇴계획인 노후건강준비수준은 집단에 따라, 그리고 남녀 간에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성봉급생활자의 경우 내제성이 강한 사람이 건강준비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한편 은퇴 후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예측되는 노후 건강문제인지 수준은 노후건강 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건강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관적 경제적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경우 노후생활에서 건강문제와 소일거리문제에 대한 인식이 건강준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즉, 노후 건강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함으로써 건강준비를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연구 결과 및 결론을 통해 중년기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에서 경제적 계획과 건강계획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며,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중년기부터 은퇴설계를 시작할 때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예측되는 은퇴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남성과 여성의 은퇴 후 부양에 대한 책임과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전망을 고려한 성별 은퇴계획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남성봉급생활자들은 여성봉급생활자에 비해 노후 경제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경제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남성봉급생활자들이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과 함께 노후 경제적 상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를 중년기부터 시작하며, 자녀양육과 교육의 부담에서 벗어난 배우자의 경제활동 및 성인자녀의 취업 등을 모색하여 소득원과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 남성의 경우 부채 및 자산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는 노후 자산 및 부채를 예상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제계획 모델을 제안하는 상담서비스와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한편 여성에게는 소득수준별로 실천할 수 있는 경제계획과 단기금융상품을 제시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에서는 중년기 봉급생활자의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 등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은퇴준비교육 등을 지

원하는 역할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또 봉급생활자 개인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기업이 노후생활계획을 경제생활 뿐 아니라 은퇴 후 여가계획, 건강관리, 심리적인 은퇴 준비 등 다양한 실제 생활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건강문제와 소일거리문제가 노후건강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건강관리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을 기업에서 지원한다면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은퇴계획을 수립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봉급생활자 개인의 은퇴계획 시, 특히 성별에 따른 요구도를 고려한 은퇴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의 퇴직교육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정책 및 은퇴관련정책을 수립할 때 현재 중년층이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준비가 취약한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에서 남녀의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사와 경제적 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설계를 경제적 측면과 건강측면에서 비교하는데 중점을 둔 결과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은퇴 후 건강상태를 예측하고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체적 측면에서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로 한정하였으나, 객관적인 질병의 예상이나 치매 등 정신적인 건강의 저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상태와 요구도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노후대비저축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와 관련하여 봉급생활자 중에서도 직종과 교육수준 등을 세분화하여 교육수준과 직종, 교육수준과 소득 등의 교차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보다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접수일 : 2005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12월 06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2월 13일

【참 고 문 헌】

김남진(2000). 노인들의 건강행위 실천 정도와 관련요인 분석. **한국노년학회지**, 20(2), 169-182.

김명자(1989). **중년기연구**. 서울: 교문사.

김미경(1992). **중년층의 노년 생활준비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김순미·홍성희·김혜연·김성희(2004). 봉급생활자의 은퇴설계: 노인 부양으로서 유료노인시설 선호 및 요구도. **대한가정학회지**, 42(5), 175-192.

김승희(1997). **노부모 부양의식과 노후생활전망 -중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김연옥(1992). 퇴직예정자의 퇴직태도 및 퇴직 후의 계획에 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4, 1-26.

김애순·윤진(1995). 은퇴 이후의 심리·사회적 영향 -은퇴는 위기인가?-. **한국노년학**, 15(1), 141-158.

김인숙(1993). **농가의 노후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김정순·권자연(1996). 요양원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상태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7(2), 216-228.

김지경(2004).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원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문숙재·여윤경(2001). 예비노인의 은퇴와 경제적 복지의 예측. **소비자학연구**, 12(1), 115-131.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33.

박선옥(1997). **중장년 사무직을 위한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태도와 프로그램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연구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 논문.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삼성경제연구소(2002).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서병숙(1992).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서인선(2000). 노인들의 지식과 건강행위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0(2), 1-28.

성미애(1999).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 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손상희(2000). 은퇴 후 경제준비를 위한 재무교육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생활과학연구**, 6, 35-48.

신하연(1997). **중년기 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신화용·조병은(1999).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특성과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19(1), 31-44.

이성희(1997). **도시지역 노인의 건강요구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승아(1998).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은경(2002). 중년기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동부산대학 논문집**, 21, 715-744.
- 이정숙 · 이인수(2005). 노년기 건강관리행동과 사회경제요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7, 231-253.
- 이주일(2003). 기업구성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준비교육 요구. **한국심리학회지**, 16(1), 57-79.
-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자 · 김영미(1996). 청소년의 부모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117-128.
- 이혜자 · 김윤정(2004). 부부관계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4), 197-214.
- 임장순(1990). **한국인의 노후생활대책에 관한 의식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장삼수(1998). **조기퇴직 불안이 중년기 위기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40-50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전길양 · 송현애 · 고선주 · 김일명(2000). 노년기 준비교육 프로그램 -필요로운 노후 가꾸기-. **한국노년학**, 20(1), 69-91.
- 정경희 · 오영희 · 석재은 · 도세록 · 김찬우 · 이윤경 · 김희경(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정진희(1997). **노인의 건강행위와 영향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지연경 · 조병은(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최가영 · 조임현 · 이의훈(2001). 노년기근로자의 퇴직현상에 관한 심층적 연구. **한국노년학**, 21(1), 73-92.
- 최보아 · 지영숙(2004). 은퇴자의 생활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47-61.
- 통계청(2004). 고령자 통계를 조선일보(2005). 한국, 노인중가을 최고. 2005. 8. 12일자에서 재인용.
- 한경혜 · 이정화 · 옥선화 · Ryff, C., Marks, N.(2002).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역할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2(2), 209-225.
- 한국경제신문(2005). 인간수명 100세 현실로. 2005. 10. 30.
- 허정무(1998). 퇴직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탐색을 통한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한국노년학회지**, 18(3), 1-18.
- 홍성희 · 이경희 · 광인숙 · 김순미 · 김혜연 · 김성희(1998).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중노년층의 노후생활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 Atchley, R. C.(1991).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 Wadsworth.
- Barfield, R. & Morgan, J.(1978). Trends in planned early retirement. *Gerontology*, 11, Spring, 29-32.
- Boaz, R. F. & Muller, C. F.(1989). Does having more time after retirement change the demand for physician services? *Medical Care*, 27, 1-15.
- Boss, R., Aldwin, C. M., Levenson, M. R. & Ekerdt, D. J.(1987). Mental health differences among retirees and workers :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Psychology and Aging*, 2, 383-398.
- Evans, L. Ekerdt, D. J. & Bosse, R.(1985). Proximity to Retirement and Anticipatory Involvement: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0(3), 368-374.
- Maddos, G. L.(1970). Adaptation to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10, Spring, 14-18.
- McPherson, B. & Guppuy, N.(1979). Preretirement lifestyle and the degree of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4, 254-263.
- Parsons, H. S. J. & Gilbert, N.(1981). *The Retirement Experience*. Cambridge. MA: MIT Press.